

보도시점: 2024. 6. 14.(금) 배포 즉시 / 배포: 2024. 6. 14.(금) 14:00

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

‘새만금 자문단’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

- 이차전지 투자열기를 잇는 새로운 투자유치 분야 발굴
- 새만금만의 투자인센티브,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기업 유치 전략 마련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, 이하 새만금청)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·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,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,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.
-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, 투자, 해외, 문화예술관광,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.
 -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, 이번 회의에는 산업, 금융, 영미권 투자유치,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.
-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(23.6월)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(23.7월)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.
 -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*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, LS그룹 등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,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.1조원을 달성했다.

□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본격화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 열기를 지속시키고,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·MICE산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유치도 가속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.

-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투자 열기를 잇고, 동시에 유리한 입지, 정부 지원 등 새만금만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고,
-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·MICE산업의 기본방향을 고민하면서 항만·철도·공항 등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잘 연계한 차별화된 선도 사업을 선정,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.
- 또한,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의 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,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민첩한 대응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.
- 특히,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국제 동향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.

□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“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도 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, 새만금개발의 핵심은 기업투자유치에 달렸다.” 라면서,

- “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이차전지 투자열기를 잇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계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진후 (063-733-10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국 (063-733-1091)
			주무관	이현주 (063-733-1087)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남궁재용 (063-733-12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소정 (063-733-1239)
			주무관	윤효정 (063-733-1236)

